

풀뿌리 세계시민을 만나다

[1] 풀뿌리 세계시민은 누구인가?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공석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2025 시리즈기획

풀뿌리 세계시민을 만나다

- [1] 풀뿌리 세계시민은 누구인가?
- [2] '생태 투어리즘'이다
- [3] 선진국은 사회혁신을 이룬 농업국이다
- [4] 가벼운 만남에서 공동체가 시작된다
- [5] 마을공동체의 답은 돌봄 민주주의다
- [6] 이주민 돌봄이 다문화 사회를 이룬다
- [7] 지역 애착'을 통한 성공적인 귀농, 귀촌, 귀향을 위하여
- [8] 사회적 가치를 먹고 살 수 있는 시니어 일자리를 찾아
- [9] 마을교육 공동체가 거버넌스의 리빙랩이다
- [10] 풀뿌리주민에서 세계시민으로: 한국과 동아시아가 마주한 과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저항에서 풀뿌리 세계시민을 찾다

세계화는 기회이자 위협이다. 그러다 보니 친^親세계화, 역^逆세계화(rolling back globalization), 반^反세계화(anti-globalization)를 넘어 그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는 대안 세계화^{alt-globalization}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반세계화와 달리 역세계화나 대안 세계화는 세계화 전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역세계화는 경제적 측면의 모순을 직시하고,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극복할 수 있는 '인간적 세계화'를 위해 풀뿌리 시민의 역량화^{empowerment}와 지방, 국가, 지역, 국제 수준에서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대안적 세계화와 연결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중층적 복합 위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경제위기, 자원위기, 생태위기, 기후재난의 중층적 복합작용은 상대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위협과 도전에 대해 어떤 응전의 전략이 필요한가? 위로부터는 일국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국적 활동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아래로부터는 지방의 구체적 사안과 연결한 풀뿌리 활동과 결합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것이 지방적 뿌리와 지구적 연대를 결합하는 '풀뿌리 세계시민주의'^{grassroots cosmopolitan citizenship} 전략이며 이를 견인하는 리더가 바로 풀뿌리 세계시민이다.

우리가 유념할 사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옹호하는 세력들의 네트워크는 더욱 강고해지고 있다. 민주주의적 세계화를 지향하는 헌신과 열정적인 저항의 초국적 연대 활동은 지속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자원, 사람, 지식, 정보 측면에서 초국적 라이벌로서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대변하는 싱크탱크로서 세계경제포럼은 디지털 전환과 AI 혁명에 기반을 둔 정보지배체제와 디지털 플랫폼 경제로의 수렴을 설파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추동하는 거대 정보통신 기업은 소위 '초국적 자본가계급'^{*transnational capitalist class}을 양산하고 있다. 이들은 경쟁주의와 능력주의를 신봉하고 글로벌 수준의 교육과 초국적 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개인의 성취로 자긍심을 갖는다. 그 결과 어느 한 지방이나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기보다는 국가 경계를 쉽게 넘나들면서 지구화된 생활, 문화, 소비습관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풀뿌리 지방이나 국가 더 나아가 전지구적 이슈에 대해 거리를 둔다.

우리는 과연 초국적 자본가계급과 풀뿌리 세계시민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인간군^{人間群}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한국 사회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환경, 그리고 안보에 이르기까지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놓여 있다. 지금 미래에 대한 생존을 위해 한국 사회는 누구에게, 무엇을, 어디에서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절체절명의 시점에서 비판적인 성찰의 자세로 실천적 답을 모색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견지에서 저자들은 글로벌^{Glocalization}과 로컬벌^{Locabalization}의 연계 맥락 속에서 초국적 자본가계급이 아닌 '풀뿌리 세계시민'^{*rooted cosmopolitan citizenship}을 핵심 행위자로 보고 동아시아 지역 맥락에서 이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기제와 맥락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동아시아 특히 한국, 일본, 대만 등의 다양한 지역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 및 심층 인터뷰 조사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활동가, 풀뿌리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 국가 및 지역 간의 여러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사회는 저출산과 초

고령화, 인구 및 산업구조 변동으로 인한 지방소멸, 지역 생태계의 파괴와 지역 차별, 지역 공동체의 붕괴와 돌봄의 위기, 지역문화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이기적 개인주의의 득세 등의 공통적 도전에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이론적, 경험적 연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연구자, 정책실무자, 활동가에게 유의미한 함의와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인구구조의 급변은 돌봄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인구 사회학적 변화, 즉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해 좀 더 솔직하게 접근해야 한다. 2024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8명으로 급기야 0.7 아래로 떨어졌고 65세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자고 “결혼하라!”는 공익광고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는 이미 사하라 이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급격한 속도로 저출산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기에 그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 이럴 때일수록 급히 서두르기보다 어떻게 인구감소 속도를 줄이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른바 축소사회를 향한 '창의적 인구감소'^{*creative de-population}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초고령화된 과산 농촌지역 모습

과연 인구감소의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개인주의, 개발주의, 승자독식, 소비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에 마주하면서 사회구성원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은 생애 주기적 돌봄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돌봄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생태계와 긴밀히 연결되기 때문에 '돌봄 민주주의'는 더 이상 일정 영역에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양육, 교육, 의료 및 돌봄의 문제를 사회적 약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국가가 돌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질 수는 없다. 국민이 성실한 납세 의무를 회피한 채 국가가 돌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다. 지금까지 돌봄 서비스는 국가가 위로부터 관리, 지원하고 있다. 국가 수준의 돌봄 사업에 눈을 뜬 민간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안타깝게도 돌봄의 전문성을 높이기 보다는 더 많은 돌봄 수혜자를 확보하기 위한 유치 경쟁에 집중한 나머지 돌봄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공공의료와 요양시설과 같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 재원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지만 돌봄은 궁극적으로 지역에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돌봄의 중요한 요소인 지역 공동체, 돌봄 제공자-수혜자 간의 신뢰 관계, 생애 주기적 돌봄 참여를 통해 돌봄 받을 권리 인식의 체득을 위해서는 현지의 구체적인 장소에서 지역주

민들 사이의 상호 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돌봄에 관한 한 시민의 능동성, 협력적 관계, 지역사회의 친밀함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 공동체는 건강한 돌봄 커뮤니티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돌봄 서비스가 협력적인 방식으로 제공될 때 지역 구성원도 복지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구성원이 함께 설계하고 함께 서비스를 준비, 제 공함으로써 살아있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사회운동론의 대가 윌리엄 갬슨^{William Gamson}은 미시적 공간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공동으로 경험하기 위해 '소 통정치'^{Talking Politics}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 간의 소통 없이는 주민 자율성의 귀중한 결실인 다양성, 포용성, 개방성, 유연성, 창의성, 호혜성, 이타주의, 투명성, 책임성을 결코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풀뿌리 세계시민이란 바로 지역 혹은 마을 안에서 소통정치를 견인하는 리더에 다름 아니다.

풀뿌리 세계시민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은 '가벼운 공동체'^{light community}가 활발히 작동하는 구체적인 지역과 마을이다. 가벼운 공동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치니^{Ezio Manzini}는 전통적 공동체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유연하고 개방적이며 손쉬운 유대감을 기반으로 하는 가벼운 공동체를 강조했다. 가벼운 공동체를 통해 이기적 개인화로 분리되고 단절된 외로운 주민을 다시금 지역 공동체로 불러들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Manzini 2019).

우리가 꿈꾸는 지역 공동체는 연줄에 기초한 강한 유대감을 지닌 전통적인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벼운 공동체는 외로운 개인이 일상의 장소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준다. 직접적 접촉과 만남이 없는 돌봄은 상상할 수 없다. 가벼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은 지역과 마을 안에서 상호 협력과 이익을 위한 자원을 재발견(탐색), 주민 간 협력 과정을 통해 지역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협업), 적극적으로 실천(행



동), 기존의 관습적 활동을 넘어서는(변환) 과정으로 구성된다. 경계를 창의적으로 넘어서는 때 지역 공동체는 혁신적 변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이 함께 만나고, 소통하면서 창의적으로 대안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커진다.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 회복력을 견인하는 풀뿌리 세계시민을 만나다!

우리는 전지구적 도전에 대해 ‘비판적 독해’를 통해 풀뿌리 사회 스스로 시민권의 주창^{reclaiming citizenship}과 지역 회복력^{local resilience}을 강화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는 ‘풀뿌리 세계시민’을 구체적으로 만나고자 한다. 그렇다면 풀뿌리 세계시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풀뿌리 세계시민은 지역이 마주한 공동의 위기에 대해 구성원 모두가 다양한 차별 요소와 경계를 넘어서고, 구체적 장소에서 서로 만나고, 경청의 자세로 타자의 얘기를 듣고, 소통하는 훈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그들은 상호 이해하고 함께 궁리하고 지역 맥락에 적합한 창의적 대안을 합의 과정을 통해 구성한다. 이것을 기초로 한 공동의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을 지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궁극적으로 이 과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게 된다.”

이처럼 풀뿌리 세계시민은 지역사회에서 이기적 개인주의에 빠진 주민을 ‘시민성’^{civility}을 갖춘 ‘풀뿌리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을 제공하는 글로벌 혹은 로카발 리더이다. 또한 풀뿌리 세계시민은 지역 혹은 마을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에서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와 협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으로 ‘가벼운 공동체’ 구축에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삼아 다양한 협동과 연대 전략을 편다.

그러나 앞서 강조한 것처럼 디지털 세계화를 통해 정보 체제^{information regime}가 강화되면서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쉽게 연결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정보 체제는 개인을 물리적으로나 시간상으로 분리, 단절시켜 철저히 외로운 개인으로 전략시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경험은 우리의 관계성을 단절시켜 ‘비대면 사회’^{untact society}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개인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부상으로 더욱 쉽게 연결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는 가장 된 ‘자유의지’에 기초한 플랫폼 자본주의의 보이지 않는 감시와 통제를 간과한다. 그 결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지배 체제의 수동적 소비자로 전략한다. 이처럼 우리는 쉽게 연결되고 있지만 상호 연대와 협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사라지는 정보지배 체제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외로운 개인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서 타자를 바라보기보다는 자신 안에 갇힌 채 부득 불의 경우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만 타자와의 연결에 이른다. 외로운 개인은 타자와의 ‘접촉능력’^{tactility}을 상실하고 있다. 타자를 만나지 않으니 그를 바라볼 수도 없고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도 없다. 자연스럽게 타자에 대한 인정과 존경은 더욱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외로운 개인이 지역 혹은 마을 안에서 상호소통과 협동 더 나아가 대안을 모색하는 연대 활동을 기대하는 것은 큰 도전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 아래 정보지배 체제의 보이지 않는 습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풀뿌리 세계시민과 가벼운 공동체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의 풀뿌리 세계시민의 실험과 도전 과정을 주

목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풀뿌리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발굴하고 발현하는 창의와 혁신, 헌신과 열정, 애함심, 겸손과 존중의 리더십은 매우 고무적이다. 아래로부터 전지구적으로 확산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저자들은 주로 초국적 시민사회 활동가에 관심을 가졌다. 예컨대 레스터 브라운^{Lester Brown}, 마틴 코^{Martin Koh}, 이본 쉬나드^{Yvon Chouinard},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 등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야기된 복합적 위기에 대한 대안을 초국적 차원, 남반구 지역 차원, 그리고 풀뿌리 차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 대안 모색과 실천적 과제를 촉발하는 데 이바지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좀 더 친밀한 동아시아 맥락으로 돌려서 풀뿌리 세계시민을 발굴하고, 그들이 풀뿌리 지역에 발을 딛는 동시에 거시와 미시를 연결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검토하고자 한다.

2000년에 발간한 <마을에 해답이 있다-한국 사회의 대안 찾기>에서 저자들은 전지구적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도가 거시에서 미시까지 중층적으로 얹혀 있음을 강조하였다. 물론 한국 정부가 추진한 위로부터의 ‘추격 전략’^{catch-up}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우선이다.



일본 도야마현 가미이치 소개 포스터

마을과 지역 단위에서 추진된 다양한 사업들 예컨대 사회기업, 협동조합, 돌봄 사업, 투어리즘, 대안 교육 등의 위탁 사업에 대한 총합적 검토가 절실하다. 그 위에서 희망적인 실천 과제로서 ‘가벼운 공동체’ 실험 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번에 주목하는 풀뿌리 세계시민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풀뿌리 지역사회가 가벼운 공동체 전략을 어떻게 동원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떤 유의미한 특징을 갖는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풀뿌리 세계시민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장애물과 도전과제가 존재한다. 풀뿌리 지역사회는 더욱 가벼워진 관계성 속에서 상호 만남과 연결이 증가하고 참여와 존중의 자세로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협치를 실천하게 된다. 지역으로 유입된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협력과 연대는 물론 세대 간의 소통과 협동을 통해 창의적인 지역혁신을 꾸준히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풀뿌리 세계시민이 그 중심에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이처럼 복합적 글로벌/로컬 위기의 수렵에 대한 대안 모색은 결국 풀뿌리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그 핵심은 민주주의의 바탕으로서 시민권을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 공동체, 즉 ‘가벼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초국적 영역으로까지 협동과 연대를 추구할 수 있는 풀뿌리 세계시민이 자라나야 한다.

주제와 지역을 중심으로 얘기를 펼쳐간다!

이제는 기후재난, 플랫폼 자본주의, 알고크라시^{algocracy}, 돌봄 민주주의까지 그 주제와 활동 영역이 풀뿌리에서 전지구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중층적 도전과 기회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풀뿌리 세계시민의 활동이 기대된다.

매회 주제에 따라 국가 혹은 지역별로 소개되는 풀뿌리 세계시민의 사례 속에서 그들의 비전, 목표, 창의적 리더십과 혁신 활동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동아시아적 풀뿌리 세계시민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후 8회에 걸쳐 풀뿌리 세계시민을 주제와 지역에 따라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 주제는 아래와 같다.

2회에서는 '생태 투어리즘'을 주제로 지역 회복과 환경 생태 투어리즘의 연계를 통해 지역과 마을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세계시민을 만나고자 한다. 2003년 '쓰레기제로' ^{Zero Waste}를 선언한 일본 도쿠시마현의 가미가초 ^{上勝町}의 에너지 전환과 생태 투어리즘 연계 거버넌스 활동, 그리고 도쿠시마현 가미야마 ^{神山町}로 이주한 한 여성의 창의적 생태 투어리즘 기획도 흥미롭다.

한국 사례로 한강을 무대로 생태 보호, 자원봉사와 지역 공동체 그리고 인문과 환경을 연결하는 투어리즘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한강사회적협동조합'을 소개하고자 한다. 각각의 사례의 중심에 있는 풀뿌리 세계시민과 가벼운 공동체 전략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3회에서는 '선진국은 사회혁신을 이룬 농업국'이라는 주제로 지역 회복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산-관-학 협력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 군마현 다테야바시 ^{館林市} 사례는 시민사회가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혁신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것은 한국의 관 주도의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전북 완주군의 '소셜굿즈혁신센터' 사례는 풀뿌리 세계시민을 발굴하고 성장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관계에서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4회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와 지역 공동체의 명암'이라는 주제로 플랫폼 자본주의의 습격에 대항하는 풀뿌리지역 시민사회의 분투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디

지탈 플랫폼 경제는 공동체 안에서 우물과 같은 단골을 사라지게 만들고 지역주민 간의 신뢰는 반목과 질시로 대체시키고 있다. 디지털 혁명과 플랫폼 자본주의는 공동체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다. 에어비앤비 ^{Air B&B}, 당근마켓의 명암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슬로우 투어리즘 ^{Slow Tourism}의 대명사인 교토의 숙박 커뮤니티는 에어비앤비의 무차별적 확장으로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한국의 당근마켓 플랫폼의 야심에 찬 가상 커뮤니티 기획은 구체적 마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연결이 아니라 가벼운 접촉과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뢰는 이러한 가벼운 만남과 접촉을 통해서 시작된다.

일본 군마현 다테야바시 ^{館林市}의 지역상품 개발 과정은 가벼운 공동체 전략의 유의미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서울시의 공유 부엌 사업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위로부터 추진됨으로써 오히려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그들이 이익을 선점하는 부작용을 낳고 말았다. 풀뿌리 세계시민의 주도적 역할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5회와 6회는 두 차례에 걸쳐 돌봄을 주제로 마을공동체가 돌봄의 문제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대안임을 일본, 대만, 한국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돌봄은 국가나 기업 혹은 가정에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복합적이고 세미한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관계성에 기초한 돌봄을 전제로 생애 주기적 돌봄 참여 기회를 통해서 돌봄은 완성될 수 있다. 지역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과 참여를 통해 실천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과정을 반복할 때 지역 공동체 구성원 누구든지 '돌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것을 존중할 수 있다. 대만 타이둥 두란 ^{都蘭} 사례, 일본 시가현 히가시오미 ^{東近江}시와 에이겐지 ^{永源寺}촌 사례 그리고 서울 성북구의 '돌봄의원' 사례를 비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동아시아 풀뿌리 지역도 이주민 돌봄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이주민의 돌봄의 문제를 지역 공동체에서 풀어 갈 때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대만의 원주민 돌봄, 일본의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 돌봄, 그리고 한국의 이주민 돌봄 사례 속에서 우리가 닳고자 하는 풀뿌리 세계시민을 만날 것이다.

7회에서는 지역으로 역이주하는 귀농, 귀촌, 귀향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풀뿌리 세계시민은 바로 '지역 애착'에서 시작되었음을 주목하고 다양한 정착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역 회복력과 청년 일자리 사업을 주제로 일본 도야마현의 가미이치(上市町)의 외국인 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은 매우 성공적인 사례이다.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외국인 유학생에게 지역 일자리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어떤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군마현의 다테야바시(館林市)의 공무원 부자 얘기는 세대를 이어가며 지역을 지키려는 그들의 헌신과 열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물론 이것은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연고주의에 기초한 공무원 간의 강한 연줄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 애착심을 갖고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열린 자세로 지원과 협력에 앞장섬으로써 적극적으로 지역 공동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견인하는 리더가 바로 풀뿌리 세계시민이다.

8회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먹고 살 수 있는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풀뿌리 사례를 주목하고자 한다. 최고의 은퇴선물은 일자리를 갖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생계를 위한 일자리기보다는 시니어들이 지역 공동체의 공공선에 기여하는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시니어들은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과 동시에 적절한 경제적 보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할 것이다. 도쿠시마 가미가초^{上勝町}와 도야마의 가미이치^{上市町} 사례와 서울시 '한강 사회적협동조합'의 시니어 참여프로그램은 흥미로운 사례이다. 물론 시니어에는 이주민 시니어도 포함되기에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9회에서 풀뿌리 지역 혹은 마을이 학교 그 자체임을 주목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풀뿌리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검토하고자 한다. 아이를 지역에 억지로 붙들어 두기 위해 지원을 쏟아붓기보다는 아이들이 지역에서 더 머물고 싶은 대안 교육을 발굴하고 그것을 지역 공동체가 함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히 그 교육은 풀뿌리 세계시민 교육이 될 것이며 그 가운데 풀뿌리 시민이 나오고 그들이 지역과 마을을 지킬 것이다. 한국, 대만, 일본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대안 교육공동체 사업 예컨대, 충남 홍성군 홍동 마을 학교, 도쿠시마현의 가미야마 '마루고토 고등 전문대학'^{Marugoto}

College of Technology와 와카마야현 타나베시^{田辺市}의 '우추호



대만 타이둥 두란 지역 모습

아카데미^{*Utsuho-academy}, 그리고 대만 타이둥 ‘국제혁신학교’^{*Junyi School of Innovation}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처럼 모두 여덟 회에 걸친 다양한 주제와 지역에 걸친 소개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풀뿌리 세계시민을 만날 것이다. 풀뿌리 세계시민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풀뿌리 주민에서 지역 시민으로, 그리고 국가를

넘어 초국적 혹은 세계시민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거사와 미시는 끊임없이 만나고 연결되고 그 안에서 대안을 창의, 혁신, 협동의 과정으로 창출하는 것이고 그 과정을 견인하는 리더가 풀뿌리 세계시민이다. 마지막 10회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굴된 풀뿌리 세계시민 모델이 어떻게 전지구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지를 전망하며 동시에 마주한 도전과제도 살펴봄으로써 시리즈를 마치고자 한다. 

참고 자료

- 공석기·정수복·임현진. 2023. 〈시민사회운동의 미래는 있는가: 성찰적 비판과 실천적 과제〉, 진인진.
- 공석기·임현진. 2017. 〈주민과 시민사이: 한국 시민사회의 사회적경제 활동 돌아보기〉, 진인진.
- 공석기·임현진. 2020. 〈마을에 해답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지역 되찾기〉, 진인진.
- 임현진. 2012. 〈지구시민사회의 구조와 역학〉, 나남.
- 한병철. 2023. 〈정보의 지배: 디지털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전대호 역. 김영사.
- Danaher, John. 2016. "The Threat of Algocracy: Reality, Resistance and Accommodation," *Philosophy & Technology*, Vol. 29: 245–268.
- Gamson, William. 1992. *Talking Politics*,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mont, Michèle. 2023. *Seeing Others: How Recognition Works and How It Can Heal a Divided World*, Atria/One Signal Publishers.
- Lim, Hyun-Chin, & Suk-Ki Kong. 2020. "Civic Engagement in the Energy Transition since Fukushima and its Impact on Renewable Energy Policy Compensation in South Korea," *Korea Observer*, Vol. 51(3): 463–483.
- Manzini, Ezio. 2019. *Politics of the Everyday*, New York: Bloomsbury.
- Scholte, Jan Aart. 2003. *Democratizing the Global Economy: The Role of Civil Society*, Coventry, UK: Center for the Study of Glob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 Sklair, Leslie. 2001. *The Transnational Capitalist Class*, NJ: Wiley-Blackwell.
- Smith, Jackie. 2008. *Social Movements for Global Democracy*.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Tronto, Joan. 2013. *Caring Democracy: Markets, Equality, Justice*, NY: NYU Press.

사진=공석기 교수 제공

저자 소개

임현진(hclim@snu.ac.kr)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를 마쳤고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 분야는 발전사회학, 정치사회학, 지구사회학, 비교사회학, 민주주의론 등이다. 주요 연구 저서로 〈전환기 한국의 정치와 사회: 지식, 권력, 운동〉(2005), 〈한국의 사회운동과 진보정당〉(2009), 〈세계화와 반세계화〉(2011), 〈지구시민사회의 구조와 역학〉(2012), 〈비교사각에서 본 박정희 발전모델: 라틴아메리카의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와 아시아의 한국〉(2017), 〈Global Capitalism and Culture in East Asia〉(2019), 〈글로벌 아시아〉(2021) 등이 있다.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며 동아시아사회학회 회장, 경실련 공동대표,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공석기(skong@snu.ac.kr)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를 마쳤고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치사회학, 사회운동론, 시민사회론, 인권사회학, 사회적경제 등이다. 주요 연구 저서로 〈글로벌 NGOs: 세계정치의 '와일드카드'〉(2011), 〈인권으로 읽는 동아시아〉(2010), 〈뒤틀린 세계화: 한국의 대안 찾기〉(2014), 〈한국 시민사회를 그리다〉(2016), 〈주민과 시민 사이〉(2017), 〈마을에 해답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지역 되찾기〉(2020), 〈시민사회운동의 미래는 있는가: 성찰적 비판과 실천적 과제〉(2023) 등이 있다. 현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경희대 공공대학원 겸임교수이다. 전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장, (사)시민 이사, 국무총리실 시민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